

## 2023년 4월 30일 “여호수아(3) 요단강 너머 유업의 땅”(수 3:14-17)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도강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요단강 도강과 언약궤

수확시기에(15절) 강물 깊이는 3m, 폭은 31m 정도라고 합니다. 수백만의 백성이 이 강을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맹세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면 뒤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3:3-4)

도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일과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 (1)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셔서 유업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말합니다(11절). 도강하려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때와 같이 언약궤를 따르거나 모세의 율법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 말씀 아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 (2) 성결하라(5절)

자기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죄는 그 실체를 알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옷을 빨거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거나,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우리의 성결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의 내적 외적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속죄를 받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때 주님은 약속의 유업을 주십니다. 불신과 원망을 넘어선 성결한 삶은 축복을 불러옵니다.

### [2] 믿음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15 후-16절). 믿음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배우고 따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본 삼아 배우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합니다(히 12:2). 이 믿음의 결과로서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이 믿음은 구원받고 자녀가 될 때 갖는 첫 믿음 이후 삶의 여정에서 유업을 받는데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마 11:28-30 참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공유한 수백만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찬송가 606 장 3 절에서처럼 죽을 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상황 앞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정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믿음으로 이겨 낸은 물론 유업의 길로 전환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업을 향해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유업 세계의 새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만났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너 취한 새 삶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현재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